맨유, 직원 해고·임금 삭감 없다…"봤냐! 리버풀"

다른 부자 구단들과 정반대 행보
선수들 급여 30%씩 갹출 기부
코로나 위기 속 명문의 품격 보여줘
리버풀은 일부 직원 일시 해고하고
해고자 임금 실업급여로 충당 빈축도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리그 중단으로 인한 재정 압박에도 직원 임금을 삭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국 신문 데일리메일은 맨유가 선수나 코치진이 아닌 일반 직원 900여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도 정상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프리미어리그가 중단되면서 홈 경기 입장권 판매 수입 등이 없어져 재정적 타격이 크지만, 직원 생계를 위해 임금을 정상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데일리메일은 "맨유는 이런 방침에 대해 언급을 하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맨유의 이런 움직임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부자 구단들과 정반대 행보다.

맨유의 라이벌 구단인 리버풀은 지난 4일 일부 직원들을 일시 해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리버풀은 "일시 해고된 직원들의 급여는 100% 지급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거센 비난을 받았다.

해고 직원들의 급여 중 20%만 구단이 내고 나머지 80%는 정부 실업급여로 충당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부자 구단'이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맨유 선수들도 구단과 함께 '명문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

맨유 선수들은 이달 급여의 30%씩을 갹출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국민보건서비스(NHS)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득점에 기뻐하는 맨유 선수들. /연합뉴스

EPL 6월 무관중 재개 가능성

영국 정부와 논의 진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중단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가 영국 정부와 협의로 6월 재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영국 매체 미러스포츠는 6일(한국시간) 프리미어리그를 6월 재개하는 방향으로 EPL과 영국 정부의 논의가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양측은 리그가 재개되면 무관중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는 등 정부의 엄격한 통제 속에 잔여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미러스포츠는 "정부는 앞으로 수 주 안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사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 EPL과 잠정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PL과 정부 간 논의가 진전을 이루자 EPL은 20개 구단은 지난 금요일 긴급회의를 열어 잔여 일정을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경기장에 올 수 없는 팬들을 위해 중계 채널을 늘려 보다 많은 경기가 생중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스카이스포츠 등 중계권을 가진 기존 유료 가입 채널뿐 아니라 무료로 볼 수 있는 공중파 채널을 통해서도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각 구단은 5월 중 대중으로부터 고립된 곳에서 훈련 캠프를 열어 시즌 재개를 준비하기로 했다.

앞서 EPL이 발표한 리그 중단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그러나 영국 전역에서 코로나19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5월 리그 재개는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EPL 구단들은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도 리그 6월 재개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코로나에도 서핑 즐기는 사람들 코로나19 이동제한 조치에도 6일 호주 골드 코스트 해변에서 서퍼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지방체육진흥 예산 7억3000만원 지원받는다

광주시체육회가 '2020년도 지방체육진흥 사업'으로 국비 예산 7억 3000여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 예산은 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한 지방체육진흥 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비 가운데 역대 최고 금액이다.

시체육회는 올해 지방체육진흥 사업으로 광주시 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각종 경기(훈련) 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체육회는 육상 등 30개 종목 각 팀에 지원, 열악한 지방체육 활성화와 훈련여건을 개선하는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평소보다 훈련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선수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준 시체육회장은 "확보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종목과 팀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살피겠다"며 "체육계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선수들이 포기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프로배구 MVP 누구?

남자 나경복 vs 비예나 각축
여자부는 양효진 vs 이다영

나경복

비예나

양효진

이다영

우승팀은 정하지 않았지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는 탄생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9일 오후 한 호텔에서 2019-2020 V리그 시상식을 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규리그를 마치지 못한 채 시즌을 종료한 V리그는 시상식도 조용하게 치른다. 팬은 물론 취재진, 중계방송 없이 시상식을 소화할 계획이다.

화려함은 떨어지지만, 트로피의 가치마저 떨어지진 않는다.

KOVO는 9일에 정규리그 1위 우리카드(남자부), 현대건설(여자부)과 개인상을 시상한다.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신인선수상, 베스트7, 공로상, 심판상, 페어플레이상, 감독상의 주인공이 공개된다.

MVP, 신인선수, 베스트7 등의 취재단 투표는 이미 완료했다.

MVP는 남자부 나경복(우리카드)과 안드레스 비예나(대한항공), 여자부 양효진과 이다영(이상 현대건설)의 2파전이다.

2015-2016 V리그 남자부 신인왕을 차지했던 나경복은 이번 시즌 리그를 대표하는 레프트로 자리매김했다.

토종 선수 중 가장 많은 491점(전체 6위)을 올렸고, 공격 종합에서도 성공률 52.92%로 전체 4위, 토종 2위에 올랐다. 팀이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해 '가점'도 얻었다.

V리그 남자부에서 신인왕과 정규리그 MVP를 모두 차지한 선수는 김학민(KB손해보험)과 신영석(현대캐피탈), 두 명뿐이다.

김학민은 대한항공에서 뛰면 2006-2007시즌에 신인왕을 받았고, 2010-2011시즌에는 MVP에 올랐다. 신영석은 2009-2010시즌 우리캐피탈에서 신인왕을 수상했고, 2017-2018시즌 현대캐피탈에서 MVP로 선정됐다.

나경복이 MVP에 오르면 남자부에서 신인왕과 MVP 트로피를 모두 손에 넣은 세 번째 선수가 된다.

비예나는 786점으로 득점 1위를 차지했고, 공격 종합에서도 56.36%로 1위에 올랐다.

개인 성적은 비예나가 앞서고, 팀 성적까지 고려하면 나경복이 유리하다.

여자부 양효진은 10시즌 연속 블로킹 1위(세트당 0.853개)에 오르고, 센터로는 가장 많은 429점(전체 6위)을 올렸다.

여자부 최초로 5500득점(5562점), 블로킹 성공 1200개(1202개)를 돌파하는 등 금자탑도 쌓았다.

1위(세트당 11.363개)에 오르고 화려한 공격(111점)까지 선보인 현대건설의 세터 이다영은 팀 선배와 MVP 경쟁을 펼친다.

양효진과 이다영 모두 아직 MVP를 차지한 적이 없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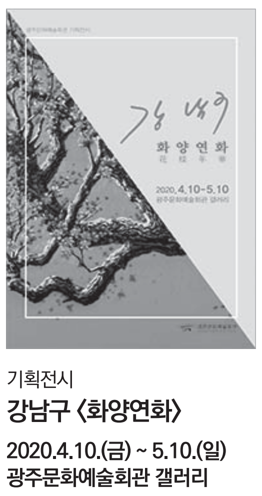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I 충장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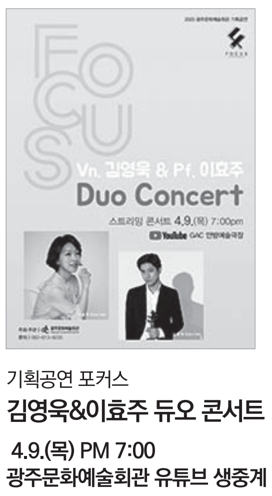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인비저블맨
3관	월드 워 Z, 스케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
4관	n번째 이별중
5관	사랑하고 있습니까
9관	주디, 다크 워터스
7관 씨네커플	1917, 더 터닝
8관 씨네커플	정직한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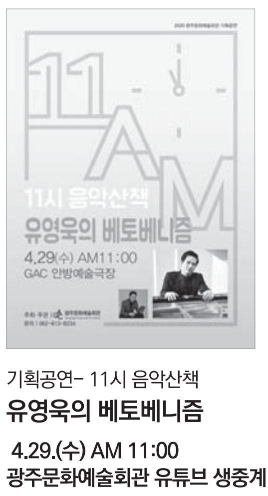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김영욱&이효주 듀오 콘서트
4.9.(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베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